

# “할아버지는 학살자...” 전두환 손자 폭로 ‘일파만파’

### SNS서 가족 신상·범죄 등 밝혀 아버지·친척 사기·마약 주장도 시민 “응원...추가 폭로해주길” 5·18단체 “추징금 환수 새 단초”

고 전두환씨의 친손자 전우원씨가 “할아버지는 학살자다. 가족과 주변인의 범죄행각을 밝혀겠다”며 자신의 SNS에 폭로 영상과 사진 등을 올려 파문이 일고 있다.

전씨는 폭로 이후에도 유튜브 라이브 등을 통해 부모와 친척 일가에 대한 ‘폭탄 발언’을 이어갔다. 특히 라이브 방송에서 전씨는 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LSD)와 대마초를 흡연한 상황이라고 밝혀 향후 큰 파장이 예상된다.

15일 전씨는 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인스타그램·유튜브 등 SNS에 가족 및 지인들의 실명·얼굴 등 신상정보가 담긴 게시물들을 잇따라 올렸다. 해당 게시물에는 전씨의 아버지이자 전두환씨의 차남인 전재용·전두환의 아내 이순자씨 등의 얼굴이 모자이크 없이 담겨졌다.

전씨는 양심고백배경으로 “할아버지는 나라를 지킨 영웅이 아니라 범죄자다”며 “이 자리에서 가족들이 지금도 행하고 있는 범죄 사기 행각들을 밝히고자 영상을 찍게 됐다. 주변의 좋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폭로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부친 전재용씨 등 가족의 범죄·비리에 대한 폭로도 이어갔다. 그는 전재용씨에 대해 “현재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고있다. 법 감시망을



과거 전두환씨와 손자들 모습.

전우원씨 인스타그램 캡처

벗어나기 위해 현재 한국에서 전도사라는 사기 행각을 벌이며 지내고 있다”며 “이자가 미국에 와서 숨겨져 있는 비자금을 사용해서 걸으로는 선한 척 하고 뒤에 가서는 악마의 짓을 못하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아버지(전재용씨)와 새어머니는 출처 모를 검은 돈을 사용해 가며 삶을 영위하고 있다”며 “(전두환씨의 셋째 아들 전재만씨는) 현재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서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다. 와이너리는 천문학적인 돈을 가진 자가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사업 분야다. 검은 돈의 냄새가 난다”며 범죄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아버지 전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우리 아들이 많이 아프다. 심한 우울증으로 입원 치료를 반복했다”며 “아

버지로서 아들을 잘 돌보지 못한 제 잘못이다. 언급된 지인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두환씨의 유가족이 직접 일가의 과오를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다 불법

적인 경로로 부를 축적한 정황이 언급되면서, 지역 곳곳에서는 ‘환영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 광산구에 거주하는 이모(47)씨는 “전두환의 가족 중 한명이 지난날의 과오를 인정하는 발언을 한 건 역사적인 일이다”며 “처음에는 ‘왜 이제와서 이런 말을 하지?’ 하는 의심이 들었지만, 3일째 폭로를 이어가고 있어 이제는 응원하는 마음까지 든다”고 전했다.

5·18 단체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번 폭로를 통해 5·18 명예회복은 물론, 926억원의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에 새로운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역사의 죄인은 후손이 그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잊어서 안된다. 이 또한 같은 사례”라며 “유족이 직접 부정축재 정황을 언급한 만큼 드러나지 않은 규모의 비밀 자산이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추징금 수

사가 속도를 내야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홍인화 5·18기록관은 “늦었지만 손자라도 전두환과 자신 일가의 과오를 인정했다고 판단, 소신있는 발언을 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 평가한다”며 “요즘 세대가 가지고 있는 공정의 가치관이 뛰어난 발언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유족이 나서 이같은 정황을 고백하고 비판한 것은 다행스러운데 보다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추가 폭로와 함께 추징금 환수에 협조할 뜻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두환씨는 지난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전두환씨가 생전에 추징금 납부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기준 추징금의 58%인 1279억2000만원을 환수했다.

정성현·강주비 기자

## “5·18 정신 폄훼한 김재원·김광동 규탄”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성명서 “진심 어린 사과로 볼 수 없어”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반대’, ‘5·18 북한 개입설’ 등을 언급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대해 전국 시민단체가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 18개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15일 성명을 내고 “지난 12일 김 최고위원이 한 행사에서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본인도 반대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공약을 득표를 위한 ‘공수표 공약’으로 폄훼하는 망언까지 쏟아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날 김진화위원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5·18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제기 배제할 수는 없다’고 공공연하게 밝혔다”면서 “집권당 최고위원과 정

부 고위공직자까지 5·18 정신을 훼손하는 망언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개탄스럽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자치연대는 비판이 빚바친 뒤에야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올린 김 최고위원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국가 차원 조사에서 사실무근으로 확인된 ‘북한 개입설’과 ‘군 헬기 사격이 허위’라는 견해를 밝힌 전력이 있어 임명 때부터 논란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망언들을 아무런 조치 없이 넘긴다면 광주시민과 국민들은 윤 대통령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공약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 이번 사례는 김 최고위원과 김 위원장 개인의 일탈로만 볼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김 위원장의 망언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고 경질해야 한다. 국민의 힘 또한 김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포함, 당 차원의 입장을 내놓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성현 기자

## ‘중고거래인 척’ 순금팔지만 낚아채 도망간 사촌형제

온라인 중고장터를 통해 직거래를 유도한 뒤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20대 두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영암경찰은 15일 특수절도 혐의로 사촌형제 관계인 A(20)·B(2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일 오후 9시30분경과 지난달 25일 오후 7시44분경 영암의 한 원룸촌 주변에서 중고 직거래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 2명으로부터 순금 팔찌 10돈 2개(600만원 상당)를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차량 운전·조수석 안에서 창문을 열고 순금 팔찌를 보여 달라고 한 뒤 낚아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피해자를 만나 순금 팔찌를 낚아채는 데 걸린 시간은 30~50초였다.

이들은 지난달 중고 직거래 앱에 매물로 올라온 다른 순금 팔찌와 스마트폰을 보고 대구와 충북 청주를 찾아 같은 방식으로 범행했다. 양기람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하는, 제15회 전국장애인문학공모전

세계는 장애인 문학공모전

접수기간 2023. 03. 13. (월) - 04. 20. (목) 18:00

응모부문

- 운문 시 부문 최대 3편
- 단편소설 A4용지 10매 내외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 동화 A4용지 5매 내외 (200자 원고지 25매 내외)
- 수필 A4용지 3매 내외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응모자격

대상	주제	제출서류
특목 장애인	장애인 인권 또는 장애인식 개선, 장애인 관련 자유 주제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애인 가족	장애 가족 양육 수기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동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지원 봉사자	장애인시설 봉사활동 수기	장애인시설 봉사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0시간 이상의 봉사 확인증 또는 봉사 내역서 등)

시상식 2023년 5월 26일(금) 오후 2시

비대면 시상식 - YouTube 오후 1시 30분부터 시청 가능 (유튜브에 '인천중고장애인지원센터' 검색 후 실시간 방송을 시청해주세요)

대상	구분	150만원	윤문 부문	1명	산문 부문	발달장애	비장애 부문
금상	80만원	2명	-	-	-	-	
은상	50만원	1명	1명	1명	1명	1명	
동상	30만원	2명	2명	-	-	2명	
기약	20만원	3명	3명	-	-	-	

작품집 수상 작품은 『해누리문학 vol.15』에 게재됩니다.

발간 수상 작품의 저작권은 복자관에 귀속되며 홍보(장애인식개선 등) 및 공익목적으로 주최기관에 의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문의 기획운영팀 032-880-2421~3

주최 인천국제공항공사 기호일보 주관 인천광역시중고장애인지원센터